

2026년 제57회 한국음악교육학회 창립 7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후기

음악교육 70년, AI 시대 음악교육의 확장과 전망

70 Years of Music Education: Expansion and Future Perspectives in the Age of AI

민경훈*

Kyung-Hoon Min

1. 서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학문적 관심과 담론의 지형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음악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은 학문적 탐구와 교육 실천의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핵심 의제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한국음악교육학회는 창립 70주년을 맞아 「음악교육 70년, AI 시대 음악교육의 확장과 전망」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2026년 8월 6일(목)부터 7일(금)까지 이틀간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음악교육의 지난 70년을 성찰하고, 급변하는 AI 시대에 음악교육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과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AI를 단순한 기술적 도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교육의 인문학적·예술적 본질을 바탕으로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행사는 한국음악교육학회 회장 최진호 중앙대학교 교수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한국교원대학교 민경훈 명예교수가 조직위원장을 맡고 서울교육대학교 백재연 교수가 전체 운영을 총괄하였다. 또한 한국음악교육학회와 서강대학교 퓨처랩연구소가 공동 주최함으로써 음악교육을 비롯한 인문학, 예술, 공학 등 다양한 분야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학제적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2. 본론

학술대회에는 공식 등록자 약 185명을 비롯해 운영진과 타 분야 교수 및 대학원생 등 총 250여 명이 참여하였다.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노르웨이, 스페인 등 여러 국가와 지역의 연구자들이 함께함으로써 국제적인 학술 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넓혔다.

학술대회는 최진호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기조 강연과 국내외 초청 발표, 연구발표가 이어졌으며, AI와 음악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특히 국내외 음악교육학자와 AI 분야 연구자, 교육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AI의 발전이 음악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사의 역할 및 연구의 방향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탐색하고, AI 시대 음악교육의 새로운 가능성과 과제를 모색하였다.

기조 강연은 연세대학교 김남주 교수(연세대 AI에듀테크센터장)가 ‘AI는 음악을 가르치지 않는다’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김 교수는 AI가 인간 고유의 감정과 표현을 온전히 대신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며, 교사가 AI를 어떻게 설계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학습자의 음악적 이해와 표현을 더욱 깊이 있게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AI를 음악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교사의 전문적 판단과 교육적 설계를 지원하는 도구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서강대학교 정다샘 교수는 음악 창작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AI 모델과 웹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사례를 공학적 관점에서 소개하며, AI 기술이 음악 창작과 교수·학습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반해 홍콩대학교 랑보아(Bo Wah Leung) 교수는 기술의 발전과 활용에만 관심을 집중할 경우 인간의 가치와 인문적 성찰이 소홀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AI 시대에 요구되는 도덕적·윤리적 성찰을 강화하고 기술의 효율성과 인간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음악교육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두 발표는 기술적 가능성과 인문적 성찰이라는 상이한 관점에서 AI 시대 음악교육이 지향해야 할 균형과 과제를 보여주었다.

총 26편의 연구발표에서는 AI와 디지털 매체를 중심으로 국내외의 인공지능 기반 음악교육 현황과 실천 사례가 다루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뮤지컬과 AI 피드백, 교육과정에 따른 AI 활용, 디지털 기반 노인의 음악 활동, AI 시대 음악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플랫폼에 수록된 동요 노랫말 분석, 전통음악 교육에서의 AI 활용 등이 논의되었다. 아울러 음악교육과 사회과학의 학제적 연구, 음악교과 중심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예술고등학교의 과점중심평가 적용 등 AI를 직접적인 주제로 삼지 않으면서도 음악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탐색한 연구도 함께 발표되어 논의의 폭을 넓혔다.

특히 진주교육대학교 김기수 교수는 ‘한국음악교육학회 70년사에서 바라본 이흥수 교

수의 생애와 활약'을 주제로 발표하여 학술대회의 역사적 의미를 더하였다. 이는 올해 2월 11일 작고하신 한국교원대학교 이흥수 명예교수님을 추모하고 그의 학문적 업적을 되새기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흥수 교수는 한국음악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우리나라 음악교육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심미적 음악교육'과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을 국내에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대표적인 음악교육학자이다. 창립 70주년을 맞아 학회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그의 생애와 업적을 조명한 것은 더욱 뜻깊은 일이었다.

학술발표와 더불어 생성형 AI 음악 창작 워크숍, 초·중등학교 수업사례 발표, 포스터 세션, 교사 창작 뮤지컬 발표, 음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AI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음악 창작과 감상, 교수·학습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한편, 기술의 활용을 넘어 AI 시대에도 지켜야 할 음악교육의 본질과 교육적 가치를 성찰하는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14개 출판사와 악기사를 비롯한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후원과 참여는 학술대회의 학문적·교육적 외연을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행사장 로비에 마련된 다양한 전시·홍보 부스는 학회와 관련 기관,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학술적 논의와 현장 간의 연결을 강화하였다.

3. 결론

이번 국제학술대회의 가장 큰 의의는 음악교육을 중심으로 인문학과 자연과학, 예술과 첨단기술이 학문적 경계를 넘어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데 있다.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이 음악교육의 방법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상황에서 기술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동시에 음악교육의 인문학적·예술적 본질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앞으로의 음악교육이 기술을 단순히 수용하는 차원을 넘어 인간과 음악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적 가능성을 모색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던 것은 학회 회원을 비롯하여 조직 위원회와 운영진, 국내외 발표자와 좌장, 토론자, 연주자, 후원기관 및 관계자들의 헌신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특히 서로 다른 전공과 배경을 지닌 연구자와 교육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시대 음악교육의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넘어 새로운 학술적 전환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음악교육학회 창립 70주년은 지난 7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기념의 시간이자

새로운 시대를 향한 출발점이다. AI를 비롯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음악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환경과 연구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음악교육이 지향해 온 인간적 가치와 예술적 본질에 대한 성찰은 더욱 중요해진다.

한국음악교육학회는 앞으로도 국내외 연구자와 유관 학술·연구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학문적 연구와 교육 현장의 실천을 긴밀하게 연결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AI와 첨단 기술이 제공하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면서도 음악교육의 예술적·인문학적 가치를 굳건히 지켜 나감으로써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음악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한국음악교육학회의 지난 70년을 기념하고 전통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교육의 시대를 여는 이정표가 되었듯이, 앞으로도 한국음악교육학회가 시대의 변화와 학문의 발전을 선도하며 음악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중심적 학술공동체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